

익산시, 기업 맞춤형 쌀 생산한다

CJ·하림 등 원료곡 공급
2700ha 1580여 농가 참여
360억원 경제적 효과 기대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에서 CJ, 하림 등에 공급할 원료곡을 생산한다. 원료곡 생산은 익산 쌀 생산단지 2700ha 면적에서 이뤄지며, 1580여 농가가 참여한다. 2700ha 가운데 CJ 가공용 쌀은 1700ha에서,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의 쌀은 650ha에서, 하림 즉석밥 가공용 쌀은 350ha에서 생산된다.

익산시는 매뉴얼에 따라 원료곡을 관리·생산한 뒤 총 2만800여t을 기업들에 공급, 36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업은 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가공용 쌀을 원하고 있다"며 "기업의 요구에 맞춘 익산 쌀 생산과 소비 촉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이 지역의 잠재된 가치와 자원을 발굴·활용해 지역의 일상적 문화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인을 모집한다. <순창군 제공>

일제 수탈 흔적 '정읍 화호리마을' 학술조사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내년까지
건축·인문환경 등 다방면 조사



일제강점기에 화호리마을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던 일본인 농장주 다우에가 살던 가옥이다. 해방 후 화호우체국으로 사용했으나 현재 멸실됐다. <전북지방우정청 제공>

일제강점기 미국 수탈의 상징인 정읍 신대인을 화호리마을에 대한 학술조사가 진행된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달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과 관련한 건축과 인문환경 학술조사에 착수한다. 첫 번째 대상 지역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정읍시 화호리마을'이다. 일제강점기에 미국 수탈이 이뤄진 화호리마을은 정읍·김제·부안 중심지로 이동하기 편한 교통 요지다. 주변에 너른 평야가 있고 물산이 풍부해 일제강점기에 많은 일본인이 이주, 대규모 농장을 세웠다. 이곳에서 수확한 쌀은 군산항을 거쳐 일본으로 유출됐다. 일본인 농장주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다우에 다로(田植太郎), 니시무라 다모쓰(西村保)와 농촌 보건위생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쌍천(雙泉) 이영춘 박사의 가옥과 창고, 당시 사용하던 사무소, 병원 등이 남아있다. 완주문화재연구소는 화호리 근대건축물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는 점을 고려해 전북도, 정읍시와 함께 건축·조경·농업·인문·민속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술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소는 2년 간의 조사를 마치고 결과물을 연구

보고서로 공개해 전북지역 농촌수탈사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화호리 마을은 전북 지역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 관련 건축·인문환경 조사 첫 대상

지로,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등록하거나 지정하는 작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코로나19 고용 불안 '청년 창업'으로 극복한다

순창군, 내일까지 30~40대 청년혁신가 모집

순창군은 지역의 잠재된 가치와 자원을 발굴·활용해 지역의 일상적 문화, 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30~40대 구직자가 직장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창업이 위기를 극복할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무료 및 심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창업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디자인 교육지원의 시제품제작지원, 도내 창업

유관기관 후속연계사업 지원, 전국 네트워크 연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또 디자인 씽킹 교육 수요자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전북도 성공창업 특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홍보 영상 제작과 크라우드펀딩 런칭지원 등의 특전도 제공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혁신가는 10일까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서를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 운영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군청 내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를 임시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감시를 강화한다. 신고센터 운영은 타 시·군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의무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군이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순창군은 안전재난과에 임시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소방서와 경찰서, 보건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들의 위반사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사례 신고 접수시 정부 방침에 따라 확인 과정을 거쳐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준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지역로 유입하려는 해외 입국자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해외 입국자 중 전북도민인 경우 입국장에서부터 공항버스로 임시생활시설인 전북도 인재개발원으로 단체 이송,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인 경우 즉시 병원 옮기고, 음성인 경우 최대 3일 입소 생활 후 각 시·군 별로 이송한다. 순창군은 음성 판정된 해외 입국자를 보건의료원 급급차를 활용해 자택이나 격리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목격한 사람은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063-650-1871~3)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가격리자는 현재 14명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 상황실 운영

자원봉사단체 등 협력 고추·복분자 수확 등 노동력 집중 투입

고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은 지역 내 일손 수요 조사와 함께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주요 품목별 농작업·농업인력 수요조사와 지역별 인력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농번기 원활한 인력지원으로 농가의 인력부족을 완화·해소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 6월 말까지 고추·양파 작업과 복분

자 수확 등 시기별,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작업에 인력 및 농기계 작업단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고창군 공무원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지역 사회·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일손돕기 울림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농협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해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홍보비와 실습교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월영소하천 정비공사 내장천변도로 구간 통행금지

정읍시는 내장천변도로 일부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월영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통행 금지 구간은 송학삼거리(금봉동 산 188-15)부터 월영마을 인근(부전동 1077-2, 시립 박물관 앞)으로 약 2.3km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8월13일까지다. 이번 통행금지 시행에 따라 송학삼거리에서 우회선이 차단돼 직진 통행으로 내장산로에 진입이 가능하다. 또 월영1교에서는 직진이 차단돼 우회전 통행으로 시립박물관 진입이 가능하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